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실천

민 희 | 경희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노르웨이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소들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위해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가능케 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노르웨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로 ‘평등과 자유의 융합’을 제시할 것이다. 노르웨이 민주주의는 강한 공동체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공동체주의는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평등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노르웨이는 이러한 가치를 교육을 통해 계승해왔다. 교육시스템은 시민의 공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식과 역량이 높은 개인이 정치참여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사회적 신뢰도 높다. 이러한 인식 하에 노르웨이는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교육 혹은 비형식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노르웨이 민주주의는 성인교육(ALE: Adult Learning and Education)을 통해 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르웨이의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성인교육시스템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I. 서론

노르웨이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하는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민주주의 지수¹⁾에 따르면 2015년 노르웨이는 총 9.93점(1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 영역에서 모두 10점을, 정부의 기능(functioning of government) 영역에서 9.64점을 기록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었다. 노르웨이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거버넌스 지수(WGI: The World Governance Indicators)에서도 매년 상위권을 차지한다.²⁾ 2014년 조사에 의하면 최상위 순위 100%를 기준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테러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영역의 순위는 90.29%,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은 96.63%,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은 92.31%, ‘법치(rule of law)’는 99.04%,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는 99.04%으로 모두 최상위 순위에 가깝다. 특히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은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부선택의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영역인데, 이는 2010년 이후 줄곧 최상위 순위인 100%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한다. 바로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저하와 정당 멤버십 감소 등과 같이 참여의 위축을 경험하면서부터다. 이러한 현실에

1)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EIU 2015). 선거과정과 다원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참여는 시민의 정치참여 수준과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충족 등을 의미한다. 정부의 기능은 정치시스템이 대표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작동하는지 또는 정치체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정도는 어떠한지를 의미한다. 정치문화는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시민의 자유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정치적·시민적 권리, 그리고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2) 거버넌스 지수를 구성하는 영역별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WGI 2014). 참여와 책임성은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부선택의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는 정부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폭력 혹은 테러리즘에 의해 진복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정부 효과성은 공공서비스의 질, 정책수립과 수행의 질, 정부의 정책 커밋먼트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의미한다. 규제의 질은 경제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제도에 관해 시민이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법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신뢰이다. 부패통제는 정치엘리트의 부정부패, 공적 권력이 사적 이익에 남용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의 민주주의가 오랜 동안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가능한 답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참여문화일 것이다. 앞에 제시된 노르웨이의 민주주의 지표들 중 유독 우리의 눈에 띄는 ‘정치참여’가 이를 방증한다. EIU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정치참여’는 투표참여, 정당 활동과 같은 제도적 참여와 시위, 시민단체 참여와 같은 비제도적 참여가 포함된다. 실제 노르웨이의 투표율은 78%로 OECD 평균(68%보다도 높다(OECD 2015)). 여성의 공직 진출 비중도 그 어떤 나라보다 높는데 노르웨이의 의회 의석의 경우 4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한다(OECD 2013). 또한 풀뿌리 차원의 다양한 조직들도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여러 결사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정당들의 세(power) 역시 이에 기반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노르웨이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소들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가능케 하는 가치(values)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이를 어떻게 실천(practices)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노르웨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로 ‘평등과 자유의 융합’을 제시할 것이다. 노르웨이는 공동 결정에 기반을 둔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고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되는 대중의 신뢰도 높다. 노르웨이 시민 중 94%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고 믿는다. 더군다나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91%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노르웨이의 이러한 특성은 평등주의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기는 문화로부터 기인한다. 그렇다고 자유의 가치가 등한시되는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 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 곧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여긴다. 즉 최소한의 물질적 부와 기회가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특권 계층이 아닌 모두가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르웨이는 이러한 가치를 교육을 통해 계승해왔다. 교육시스템은 시민의 공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식과 역량이 높은 개인이 정치참여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사회적 신뢰도 높다. 실제 2013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성인이 가장 낮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성인에 비해 정치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은 2.5배 높고 사회적 신뢰는 2.3배 높다(장미란 2014, 45).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노르웨이는 오랜 동안 공식·비공식 영역을 넘나드는 교육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민주주의는 성인교육(ALE: Adult Learning and Education)을 통해 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르웨이의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성인교육시스템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2절에서 노르웨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로 평등과 자유의 융합에 대해 논의한다. 3절에서는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실천 양식으로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는데 그중에서도 성인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짚어보고 그 가운데 노르웨이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성인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발적 교육으로 손꼽히는 학습동아리(Study Circle)와 민중고등학교(Folk High School)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 글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II. 가치: 평등과 자유의 융합

EIU 민주주의 지수를 다시 살펴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중 상위권은 모두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차지하고라도 2015년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 아이슬란드는 2위(9.58점), 스웨덴은 3위(9.45점), 덴마크는 5위(9.11점)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에는 북유럽 민주주의의 특성이 한몫을 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손꼽히는데 이들은 강한 공동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공동체주의의 시각에서 개인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이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북유럽식 공동체주의는 아래로부터 결성된 다양한 결사체의 모습으로 표출되어 왔다. 결사체 혹은 지역공동체의 시민들이 소통하고 숙고할 수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활성화 또한 이 지역 공동체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는 곧 시민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동시에 다시 개인들이 자신의 자율성을 발전시키는 학습의 장을 부여한다(니크 브란달 외 2014, 316). 그 가운데 국가는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정치문화를 경험하고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이러한 시각에서 기부를 하는 시민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특정 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이 생길 수도 혹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슈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유럽식 공동체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 ‘평등’

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는 북유럽의 공동체주의, 달리 표현하면 사회민주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되어 왔다. 그것은 바로 사회민주주의가 평등을 중시하다보니 개인이 누릴 자유의 권리를 소홀히 다룬다는 것이다.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고려해 보면 이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다루는 문화로부터 파생된다. 우리는 보통 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시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양자는 상충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데 평등하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평등한데 자유롭지 않다면 이 역시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박동천 2010, 49).

자유에 대한 북유럽식 공동체주의의 접근은 시민들 사이에 자유가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즉 자유가 특정 소수계층만의 전유물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이를 위해 시민들이 시민적 자유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물질적 부와 기회도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니크 브란달 외 2014, 25). 여기에는 언론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투표와 같은 정치적 권리는 물론이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일컫는 사회적 자유가 포함된다.

한편 자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적극적 자유 개념과 동일시된다.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프랜시스 세예르스테드 2010). 전자는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유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본다. 반면 후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자유를 공동체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때의 자유는 집단 자치나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이다. 적극적 자유의 입장에서 소극적 자유에 대한 비판을 바우만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보편적이고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의 자유주의적 이상이 고려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사회 상황의 불평등에 행동의 자유를 더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깊은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프랜시스 세예르스테드 2010, 595). 요컨대 북유럽식 공동체주의의 시각에서 개인의 자유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유럽식 공동체주의에서의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위한 평등이다. 공공 영역으로부터 소득 안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비로소 개인은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다. 책임 역시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된다. 결국 북유럽 공동체주의의 시각에서 평등과 자유는 서로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평등과 자유에 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북유럽 국가들이 공동체를 위한 장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된다. 그 가운데 노르웨이 또한 교육을 통해 북유럽식 공동체주의 나아가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자 했다. 이는 1968년 노르웨이 노동당의 피르데가 쓴 글을 살펴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다(니크 브란달 외 2014, 171).

“모든 아동을 9년에 걸쳐 통합교육시스템(unitary education) 안에서 똑같이 가르친다는 것은, 출신 계층 그리고 집안 배경이 상이한 아동들에게 협동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계급사회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교 하나만으로 계급에 뿌리박은 여러 불평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의 투쟁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거기서 나타날 교육 사회가 옛날의 계급 분리를 고스란히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급 분리까지 낳을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정규교육 이외에도 비정규교육 혹은 비형식교육을 위한 개혁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965~1970년 오토센(Ottosen)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교육이 복지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성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질서의 일부로서 시민양성에 힘쓰고자 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프랜시스 세에르스테드 2015, 338)

“이제 막 형태를 갖춰가는 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미의 교육은 사회가 오늘날 자연스럽게 찬성한 복지에 관한 요구사항 대부분이 주요한 것처럼 개인의 복지요건 중 하나로 여겨질 것이다. 개인에게 풍요로운 삶을 불리일으킬 능력과 관심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처럼 교육을 통해 인간의 시야는 더 확장되고 더 훌륭한 통찰력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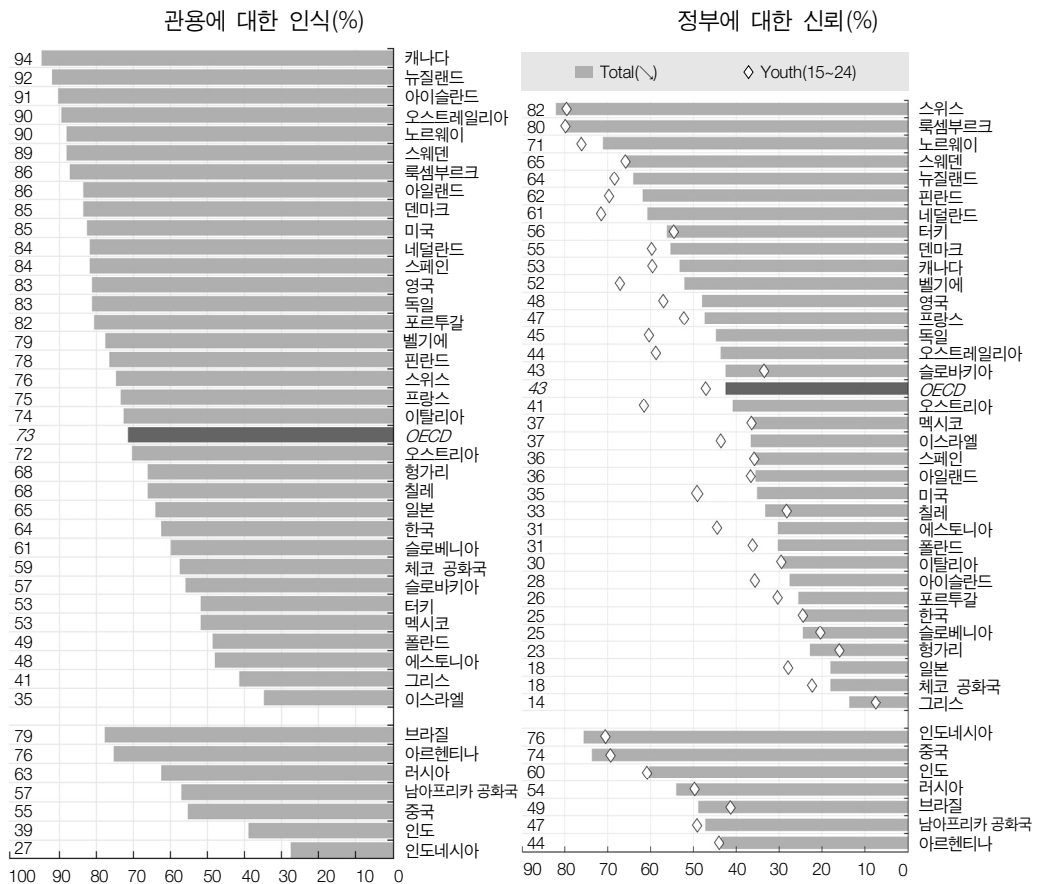
III. 실천: 성인교육시스템

1. 교육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실천에 있어서 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변수 못지않게 크다. 민주주의가 곧 능동적 참여문화의 확산이라고 할 때 정치참여 연구에서의 자원모델(Basic

Resource Model)(Wolfinger & Rosenstone 1980)이 이를 증명한다. 자원모델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간 정치학 영역에서 민주시민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을 강조해 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식견 있는 시민이란 사려 깊고 책임 있는 시민 유형으로 이는 교육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 자원봉사(volunteering) 등과 같이 민주주의의 실천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효능

〈그림 1〉 노르웨이 민주주의: 관용 인식과 정부 신뢰(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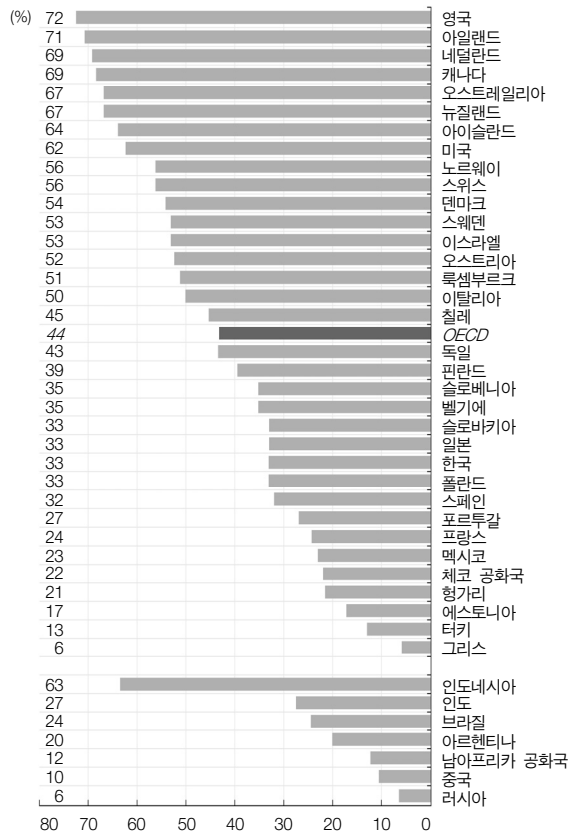


* 관용에 대한 인식: 자신이 사는 도시나 지역이 다른 국가출신의 이민자들에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의 비율
 ** 출처: OECD(2014, 137, 139)

감은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인의 정치적 능력감 혹은 자신감으로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대인신뢰는 민주주의 지지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지지도 높다. 자원봉사 또한 사회적 연대감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교육이 일상화된 노르웨이는 그 어떤 사회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실제 노르웨이는 관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높다. 2012년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르웨이의 관용성은 90%를 기록했는데(OECD 2014), 이는 OECD 평균 7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동일한 조사의 정부 신뢰 항목에서도 노르웨이는 71%를 기록하면서 OECD 평균 43%에 비해 상당히 높은

(그림 2) 지난 달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의 비율(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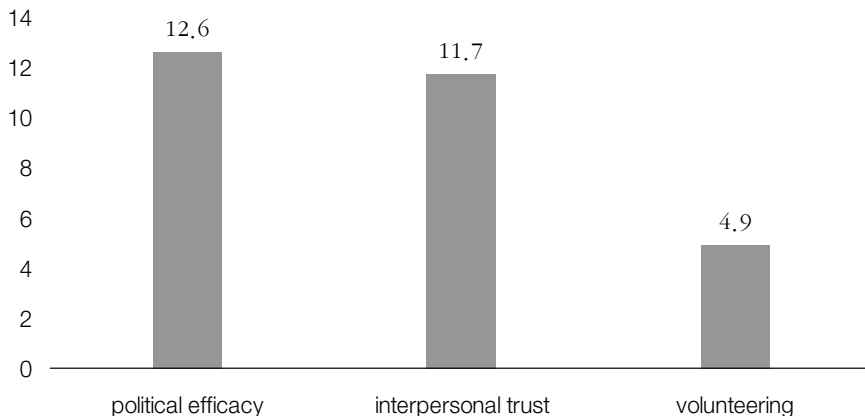
* 출처: OECD(2014, 143)

수준의 정부 신뢰를 자랑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젊은 세대(15~24세)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젊은 세대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약 88%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또한 노르웨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감이 높다. 연대감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낫선 이를 돕거나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노르웨이는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이 56%를 차지했다(OECD 2014). 이는 OECD 평균 44%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실제 교육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그림 3〉은 OECD 국가들의 교육수준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학력(직업교육 제외)의 그룹과 대학 및 직업교육 학력의 그룹 간 정치효능감, 대인신뢰, 자원봉사 수준의 차이를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및 직업교육 학력 그룹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학력 그룹에 비해 정치효능감 수준이 약 13% 증가하였다($p=0.000^{***}$, $^{***} P<0.001$). 대인신뢰와 자원봉사 수준 역시 전자가 후자보다 각각 12%, 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대인신뢰: $p=0.000^{***}$, $^{***} P<0.001$, 자원봉사: $p=0.000^{***}$, $^{***} P<0.001$). 이러한 결과는 곧 정규교육뿐 아니라 비정규 교육에 대한 경험이 민주주의 실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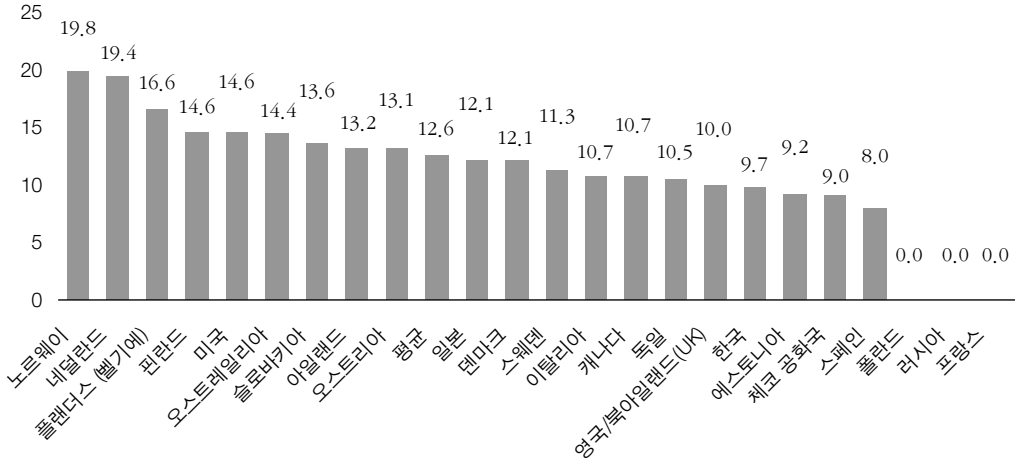
〈그림 3〉 교육이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에 미치는 효과: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vs. 대학 및 직업 교육(비정규) 비교



* 이 그림은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로 성별, 나이, 소득을 통제했을 때 정치효능감, 대인신뢰, 자원봉사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보여준다

** 출처: (OECD 2015)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 교육 수준에 따른 정치효능감 차이(%)



* 이 그림은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로 성별, 나이, 소득을 통제했을 때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보여준다
 ** 출처: (OECD 2015)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노르웨이는 교육 수준에 따른 정치효능감 차이가 그 어떤 국가보다 크다. 〈그림 4〉는 노르웨이의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학력(직업교육 제외) 그룹과 대학 및 직업교육 학력 그룹 사이의 정치효능감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대학 및 직업교육 학력 그룹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학력 그룹보다 정치효능감이 약 2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p=0.024^*$, $* P<0.05$).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큰 차이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평균인 12.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볼 때 노르웨이의 교육시스템 그중에서도 비정규교육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성인교육의 개념과 실천 영역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교육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노르웨이 교육의 어떤 측면이 민주주의의 실천에 보다 잘 기여하는가? 본 연구는 이를 노르웨이 교육시스템 중에서도 성인교육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르웨이 성인교육의

일상화가 시민의 공공 생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일상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공동체 내 자발적 모임이 뿌리 깊게 안착되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성인교육법(Adult Education Act 1976)에 의하면 성인교육은 성인이 첫 번째 전통적인 교육 경력을 쌓은 이후의 혹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인이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습득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전득주 1997).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에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회(second-chance)를 제공하는 교육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노동시장, 이주자를 위한 훈련 및 다양한 계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직업교육과정이 대표적이다(Cedefop 2009; 임언외 2009, 160재인용).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노르웨이는 개인의 삶에서의 자립심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성인교육의 역할은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Bjerkaker 2016, 16-17). 첫째, 성인교육은 기초능력 및 문해(literacy)에 관한 것이다. 노르웨이는 성인인구의 1/3이 읽기, 쓰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또한 낮다. 이에 노르웨이 교육부는 성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과 성인교육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도 성인교육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다. 둘째, 성인교육은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다. 우리의 지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직장에서의 계속교육 과정을 더욱 필요로 한다. 셋째, 성인교육은 여가 학습이다. 성인교육은 우리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돕는다. 정원 가꾸기, 낚시, 사냥, 댄스 배우기, 악기 다루기, 노래 배우기 등과 같이 성인교육은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성인교육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작동한다. 본 연구가 노르웨이의 성인교육에 주목하는 목적 또한 여기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교육이 사회적 참여나 시민관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떤 요소들보다 크다고 주장한다(Campbell 2006; Skocpol & Fiorina 1999). 이뿐만 아니라 교육은 타인에 대한 신뢰 역시 높여준다(장수찬 2013). 이러한 인식하에 노르웨이의 성인교육은 민주주의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학습으로 가능할 수 없고 모든 사회구성원에 의해 학습되어야 하는데, 교육을 통한 시민 계몽

(enlightenment)이 노르웨이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Bjerkaker 2016). 즉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뿌리는 민족적 국민성과 시민계몽이며 이것이 교육적 절충안으로 발전하였다(프랜시스 세예로스테드 2015,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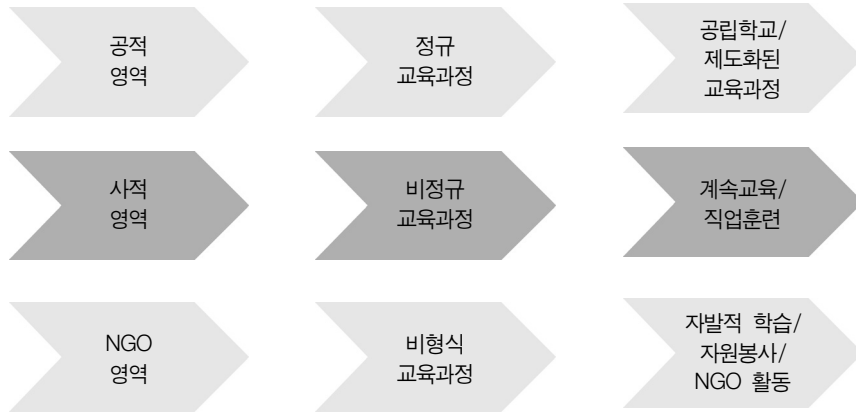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성인교육과정은 적극적인 시티즌십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것과 매우 일치한다. 시민들은 성인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요소와 기능, 선거, 정치적 대표, 의회시스템 등과 같은 정치지식을 습득한다. 나아가 정치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결사체 혹은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등 시민 권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익힌다. 더군다나 노르웨이는 성인교육의 참여율이 높다. 특히 비학위과정 및 강좌·학습동아리를 포함하는 비형식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르웨이 성인들은 평균 51%의 참여율을 보인다(OECD 2011).³⁾ 이는 OECD 평균 34%보다 높은 수치인데 이에 반해 한국은 26%에 그친다(중앙일보 2013/08/09). 이러한 배경에는 공식, 비공식 영역 모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성인교육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인교육 담당 기관들의 역할이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성인교육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정규교육과정(formal), 비정규과정(non-formal), 비형식교육과정(informal)이 바로 그것이다. 정규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정부 주도의 인증된 교육기관 중심의 구조화된 교육이다. 이에 반해 비정규과정은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진다. 주로 직장에서 제공되는 직업교육이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계속교육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형식교육은 직장, 가정, 지역커뮤니티, 레저와 관련된 것으로 도서관 학습, 성인 커뮤니티교육 등과 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일컫는다.

이상과 같이 노르웨이의 성인교육은 다차원적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노르웨이의 성인교육은 NGO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자발적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성인교육협회(NAAL: The Norwegian Association for Adult Learning)를 꼽을 수 있다. 성인교육협회(1931년 창설)는 노르웨이의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전국적 규모의 NGO 단체로 19개 주에 설립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승인한 15개의 성인교육협회가 있으며, 이들은 비형식교육을 수행하는 475개의 성인교육 NGO들과 네트워크

3) 참고로 OECD 국가의 교육수준별 25~65세의 성인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그 어떤 국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ECD 2016). 고등학교 이하: 노르웨이 42%, OECD 평균 26%,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비직업학교): 노르웨이 62%, OECD 평균 46%, 직업학교: 노르웨이 78%, OECD 평균: 70%.

〈그림 5〉 정규·비정규·비형식 교육 간 관계



* 출처: Bjerkaker(2016, 14)

크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성인교육협회의 산하 기관들은 멤버십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인교육협회의 멤버십이 되면 정부와의 접촉 및 지원이 쉬워지고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성인교육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NGO가 담당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정부, 시, 군으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성인교육협회는 정부, 의회, 교육부에게 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인교육 관련법과 시행 규칙들을 제안하기도 한다.

둘째, 성인교육과정에 있어서 공적·사적·NGO 영역 간 상호 협조 및 공유가 활발하다. 이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2004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산하에 교육훈련청(Directorate of Education and Training)을 신설하였다. 교육훈련청은 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Cedefop 2009; 임언 외 2009, 166 재인용). 성인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파트너가 국가 수준에서의 직업교육훈련에 자문을 하는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국가직업교육·훈련자문회(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직종별 교육에 관한 자문을 하고 성인교육에 관한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안하기도 한다(임언 외 2009).

이러한 시스템 아래 노르웨이에는 성인교육기관이 전국 곳곳에 설립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성인교육센터(adult education centres), 자원 및 경력센터(resource and career centres), NGO기반 성인교육연합(NGO-based adult education associations), 민중고등학교(boarding folk high schools), 원격교육학교(distance education schools), 사기업

(enterprises and private companies), 대학의 계속교육 담당 부서(continuing education departments and divisions at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직업교육학교(tertiary vocational education schools), 학습동아리(study circle)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성인교육센터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428개)와 군(county) 단위(19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원 및 경력센터는 주로 군 단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총 16개의 센터가 있다. 원격교육학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통신 교육에서 인터넷 기반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매년 20,000명 정도의 참여자가 과정을 수료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74). 민중고등학교는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3. 자발적 교육: 학습동아리와 민중고등학교

이 가운데 학습동아리와 민중고등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자발적 교육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의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손꼽힌다.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관용, 신뢰, 관여 등과 같이 민주적 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1) 학습동아리(Study Circle)

노르웨이 성인교육의 특징은 아래로부터(bottom up)의 자발적 접근 방식에 있다. 이는 과거 노르웨이의 교육이 노동운동의 발전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세기 말 자유당(Liberal Party)이 창당되고 연이어 노동당(Labour Party)이 창당되면서 노동운동이 힘을 얻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은 야간학교(evening schools)와 일요학교(Sunday schools)를 만들고 1931년 노동자교육협회(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을 설립한다. 학습동아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노동자들은 교육적 자원의 필요성을 느껴 그들만의 '학습도구(learning tool)'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학습동아리인 것이다(장수찬 2013).

학습동아리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수평적 자율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학교교육과는 차별적이다. 보통 5~12명 사이의 작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정치적·종교적·사회적 관심사를 지니고 있다. 학습동아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굳이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촉진자나 안내자로 활동하는 경험이 풍부한 리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동아리는 참여자 개인의 삶의 문제를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 기획, 실천하면서 민주적 의사소통의 중심 기체로서의 역

〈표 1〉 학습동아리의 주요 특징

- 소그룹 모임이다.
- 스터디 모임에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다. 그룹의 리더는 모임을 조직하는 사람인데 리더가 학문적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 참여자들은 주로 토론하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 패배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공유하는 법 등을 배운다.
- 모임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역성과 정체성을 경험한다.
- 참여자들이 습득한 지식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출처: Brattset(1982, 8); Bjerkaker(2003, 1-2) 재인용

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참여자들은 토론하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 패배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공유하는 법 등을 학습한다. 각종 정치이슈나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공유한다. 이러한 참여과정으로 인해 그동안 학습동아리는 사회운동의 중심지가 되어왔고 정당 및 각종 정치적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한승희 외 2006).

2) 민중고등학교(Folk High School)

민중고등학교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인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민중고등학교는 노르웨이 민중운동의 역사와 함께 한다. 19세기 말 노르웨이에는 민중운동이 활발했는데 이는 곧 민중교양의 발달을 가져온다(프랜시스 세예르스테드 2015). 노르웨이의 민중교양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과 매우 친화적이다. 무엇보다 노르웨이는 민중교양의 양성을 통해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을 훈련하고자 했다(프랜시스 세예르스테드 2015). 또한 시민으로서 올바른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했다(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2016). 그 결과 노르웨이에는 다양한 교육회와 연구회 모임이 활성화되었고 그 한 가운데 민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로써 노르웨이는 1864년 최초로 민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배경의 민중고등학교는 구시대 교육의 핵심 집단인 종합대학(university)이나 인문계 교육기관(gymnasia)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 당시 노르웨이 사회 분위기는 계급지향적 교육을 탈피하고자 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통문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민중고등학교는 학교교육 외 민중교육에 기반을 두고 일반 학교교육 및 일반 종합대학 교육체제와 별개로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했다(프랜시스 세예르스테

드 2015, 69). 노르웨이의 민중고등학교는 교육보다는 문화 적응과 교양을 중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현재 노르웨이에는 총 77곳의 민중고등학교가 있다. 매년 6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민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교육과정을 마친 만18~25세의 청소년들이다. 물론 중·장년층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민중고등학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공교육제도와 관련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등록금이 없다. 이는 민중고등학교가 사설 학교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학교 운영의 약 55%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민중고등학교가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노르웨이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 셋째, 다른 성인교육 기관과 달리 민중고등학교는 기숙사제(boarding school)로 운영된다. 이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습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민중고등학교가 지식 습득을 넘어 다른 사람과 토론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장으로써 기능하기 위함이다(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2016).

이러한 운영 시스템을 통해 민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의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2016, 12-13). 민중고등학교는 학력, 거주지, 종교, 정치신념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새로운 생각과 사상의 도전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곧 사회성의 발달을 가져온다. 또한 민중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과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고 자신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함양하게 된다.

IV. 결론

노르웨이 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2014년 OECD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7.7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6.6점)보다 높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이 운영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들이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민주주의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노르웨이가 '완전한 민주주의'수준을 유지하는 비결 또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노르웨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가치와 실천 양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노르웨이 민주주의는 강한 공동체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공동체주의는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한 평등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노르웨이 민주주의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오랫동안 뿌리내려 왔다. 특히 성인교육프로그램은 노르웨이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비정규교육 혹은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시스템의 대안으로서 동시에 이와 대등한 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학습동아리와 민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인교육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이는 평등, 자율, 참여를 핵심 원리로 운영된다. 따라서 시민들은 성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적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운다. 시민들은 자발적인 모임 혹은 조직 활동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논쟁하는 방법과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들을 터득한다(장수찬 2013).

최근 사회가 급변하고 이해관계 역시 다양화되면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 양극화, 갈등 심화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대표적으로 사회 내에서 타인에 대한 관용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역시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급기야 이는 정치 무관심과 정치참여에 기권하는 행위를 불러일으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르웨이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현실과 상당히 다르다.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세부 지표들이 이를 증명하는데 노르웨이는 관용, 신뢰, 사회적 연대 등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이러한 측면을 교육시스템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교육은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노르웨이의 교육은 꽤 오랫동안 노르웨이 정치문화를 지탱해 온 힘으로 기능한다. 동시에 그 힘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특징을 띠기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교육시스템이 좌-우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Bjerkaker 2016). 실제 2013년 선거 결과 노르웨이는 8년 동안의 좌파정권이 무너지고 보수 정권이 집권했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합의는 변함이 없었다.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떠한가? 노르웨이와 달리 우리 사회의 관용과 신뢰 그리고 연대의 수준은 상당히 낮다. 관용의 수준은 64%로 OECD 평균 73%에 못 미친다(OECD 2014). 제도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제도 신뢰는 25%인 데 반해 OECD 평균

은 43%를 차지한다(OECD 2014). 연대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선행위도 33%로 OECD 평균 44%보다 낮다(OECD 201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일 차례이다. 노르웨이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의 민주주의의 보다 나은 전진을 위한 사회적 교두보를 마련할 때이다.

참·고·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2013년 하계 평생교육 북유럽 테마연수 결과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니크 브란달 외 저, 홍기빈 옮김. 2014.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 서울: 책세상.
- 박동천. 2010.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서울: 모티브북.
- 임 언·이영현·최지희·옥준필. 2009. 『북유럽의 직업 교육실태 및 혁신 사례』.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10. “북유럽의 직업교육 II: 북유럽의 직업교육의 시사점.” *THE HRD REVIEW*, 2010 Summer.
- 장미란. 2014. 「창조경제를 위한 평생직업역량 제고 방안」. OECD 대한민국 대표부.
- 장수찬. 2013.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제5차 대전평생교육정책포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2016. 「2016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서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 전득주. 1997.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2권 1-28.
- 한승희·김경애·이정은. 2006. “북유럽 국가의 평생학습체제: 오래된 미래.” 『아시아교육연구』 제7권 4호. 139-166.
- 프랜시스 세예르스테드 지음, 유창훈 옮김. 2015.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북유럽 사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1905-2000』. 서울: 글항아리.
- Bjerkaker, S. 2003. *The Study Circle — A Method for Learning, a Tool for Democracy*. Paper for the FACE Annual Conference 2003.
- _____.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in Norway.” *Country Reports on Continuing Education*. www.die-bonn.de(2016.8.10).
- Campbell, S. B. 2006.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Guilford Press.
- Cedefop. 2009. “Modernis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Fourth Report on Vocational Training Research in Europe — Background Report” Volume 2, *Cedefop Reference Series 70*, Cedefop.
- EAEA. 2011. *Country Report Norway* (Helsinki). www.eaea.org/country/norway(2016.8.10).
- EIU. 2015. *Democracy Index 2015*. EIU.
- English, L., ed. 2005.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Adult Education*. Springer.
- Kymlicka, W., & W. Norman. 1994.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 citizenship theory.” *Ethics*, 104(2). 352-381.
- OECD. 2007. *Improving School Leadership: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Norway: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OECD.
- _____. 2013.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 _____.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Social Indicators」. OECD.
- _____. 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 _____. 2016.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 Rose, L. E. 1982.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Norway: Alternative perspectives on a problem of democratic theory.”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5(4), 285-314.
- Schweisfurth, M. 2006. “적극적인 시민 의식 형성을 위한 노력: 국제적 비교.”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1권 2호. 135-156.
- Skocpol, T., & M. P. Fiorina. 1999. “Making sense of the civic engagement debate.”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1-26.
- Westheimer, J., & J. Kahne. 2004. “Educating the “good” citizen: Political choices and pedagogical goal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7(02). 241-247.
- _____. 2004.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ng for democrac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 237-269.
- Wolfinger, R. E., and S.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14. 「Worldwide Governance Index 2014」 World Bank.

〈신문기사〉

『중앙일보』, 2013년 8월 9일 자 기사.

〈인터넷 사이트〉

The Norwegian Association for Adult Learning(NAAL) 홈페이지 <http://www.vofo.no/en/>

접수일자: 2016년 10월 11일, 심사일자: 2016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7일

[Abstract]

Values and Practices in Norwegian Democracy

Min, Hee | Kyung Hee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plore what makes Norwegian democracy work. For this purpose, we focus on the civil society with active engagement in the public life. In addition, we try to examine the issue of which values enhance Norwegian democracy and how Norway practices its democracy. First, we show the harmony of equality and liberty as the values sustaining Norwegian democracy. Norway has characteristics of strong communitarianism. Also its communitarianism is rooted in the equal ideals guaranteeing liberty.

Second, Norway has inherited these values through education. Education system encourages citizenship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ublic life and promotes democratic values. Furthermore, Norway, for a long time, has been interested in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for adults. Especially, Adult Learning and Education(ALE) makes citizens voluntarily have their view on the public issues and participate in social or political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way that Norway implements democracy in the lens of ALE system.

-
- Keyword: Norway, democracy, equality, liberty,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formal education, non-formal education, informal education, Study Circle, Folk High School